

2024. 4. 19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19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

처 장 안병찬 02)2290-6501

팀 장 나정기 02)2290-6204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4매

관련 홈페이지 www.sisul.or.kr

서울시설공단, '여행'이 버킷리스트인 장애인들의 '꿈' 버스로 실어 나른다

- 공단, '22년 11월부터 시작한 '장애인 나들이 동행 서비스' 이용자 300명 돌파
- 휠체어석과 일반석 가능한 소형버스로 신청자 원하는 목적지에 이동지원 서비스 실시
- 4월 20일 '장애인의 날' 맞아 중증장애아동 견학 및 장애인콜택시·버스도 무료 운행
- 한국영 이사장 “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여정으로 매력서울 만들기 최선 다할 것”

- “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못 본 바다를 가보고 싶어요”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서울시설공단 약자동행 사업을 통해 평소 마음속에만 담아 뒀던 ‘여행’, ‘문화체험’ 등의 버킷리스트를 이뤘다.
- 서울시설공단(이사장 한국영, 이하 ‘공단’)은 약자동행 사업의 하나로 운영 중인 ‘장애인 나들이 동행 서비스’ 이용자가 3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.

□ 지난 2022년 11월부터 공단에서 시작한 ‘장애인 나들이 동행 서비스’는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장애인들의 신청을 받아, 수도권 지역 내 원하는 목적지로 나들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. 프로그램은 상반기(3~6월) 중 운영하는 ‘주말 나들이 프로그램’과 도심 속 관광 명소를 관람하는 ‘서울 시티투어 프로그램’(3~12월 운영)으로 구성되어 있다.

○ 휠체어석과 일반석 탑승이 가능한 소형버스가 제공되며,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식당 방문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이용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. 특히 주말 나들이 서비스의 경우 서울, 경기, 인천 지역 내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여행 코스를 기획하는 등 자기 주도 여행이 가능하다.

□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들 중에서는 한 번도 못 가본 바닷가를 찾아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만끽했다는 사연과 꿈에도 그리던 관광명소와 가보고 싶었던 개인적 장소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는 등의 감동적인 후기가 전해지고 있다.

○ 지난 1월 배우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아들의 묘소를 찾은 50대 A씨는 “지난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묘소를 진작부터 가보고 싶었지만 전동 휠체어로 이동이 어려웠다. 공단이 제공한 차량으로 아들에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고 버스 운전원분의 정성담긴 서비스 때문에 우울했던 마음이 한결 나아졌다” 고 소감을 밝혔다.

○ 지난 3월 미국 팝 밴드 마룬파이브의 인천 공연장을 다녀온 20대 청년 B씨는 “그동안 콘서트를 직접 가고 싶었는데 여의치가 않았다. 공단의 나들이 동행 서비스 때문에 인천까지 이동해서 좋아하는 가수의 내한 콘서트를 볼 수 있어서 매우 기뻐다”고 전했다.

○ 특히, 지난 3월, 국내 최초로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MLB 개막전에는 야구를 좋아하고 스포츠관련 직업을 꿈꾸는 아들을 데리고 참여한 한 장애인 아버지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. 평소 야구 경기를 함께 직접 관람하기 어려웠던 아들의 소망을 들어주고 싶었던 아버지 C씨는 “서울시설공단의 지원 덕분에 아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. 아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뻛고, 서울시와 공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”고 말했다.

□ ‘주말 나들이 프로그램’은 이용희망일 기준 한달 전 1일~10일에 이메일(kan331@sisul.or.kr)로 신청할 수 있다. ‘서울 시티투어 프로그램’은 희망 이용일 2일 전까지 ‘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’ 사이트(yeyak.seoul.go.kr) 또는 이메일(kan331@sisul.or.kr)로 신청이 가능하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누리집(calltaxi.sisul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서울시설공단, 4월 20일 ‘장애인의 날’ 맞아 중증장애아동 견학 및 장애인콜택시·버스 무료 운행>

□ 한편, 서울시설공단은 제44회 장애인의 날(4.20.)을 맞아 19일(금)에 중증장애인 아동 15명을 초청해 ‘경기도자박물관’을 견학하고, 20일(토)에는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다.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모바일 앱, 인터넷 누리집(calltaxi.sisul.or.kr), 전화(☎1588-4388)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.

○ 장애인버스의 경우 4월 20일(토) 당일 출발해 복귀하는 건에 한하여 무료 운행한다. 장애인버스 통행료와 주차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. 특히, 바우처택시(티머니 온다)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료 운행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.

□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“장애인버스 지원프로그램으로 장애인들의 여행 꿈을 이루는 데 앞장서고 있다” 며 “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, 실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더욱 내실 있는 동행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” 고 말했다.

‘장애인 나들이 동행 서비스’ 참가자 후기 요약

휠체어를 타고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가보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.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조차 꿈만 같았죠.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. 서울시설공단의 ‘장애인 나들이 동행 서비스’로 휠체어로도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〈관련사진〉 서울시설공단 장애인버스 사진

